
2018년 4/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

2018년 4/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 보고서

□ 조사 개요

○ **목 적** : 경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회원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대 상** : 경주지역 제조업체 50개사

○ **기 간** : 2018년 8월 22일 ~ 2018년 9월 5일 (휴일제외 10일간)

○ 조사 내용

1. 기업경기실사지수(BSI), 2018년도 4/4분기 전망치 및 2018년도 3/4분기 실적치 (체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 조달여건)
2. 2018년 3/4분기와 2018년 4/4분기의 정책적 환경 비교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작성방법

1. 분기별로 조사대상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 악화 또는 불변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함.
2.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 수} - \text{악화표시 업체 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 BSI ≤ 200)

2018년 4/4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

- 경주지역 주요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 BSI '46'으로
.... 사상 최저의 수준으로 나타남
- 경기회복에 대한 기업의 기대심리는 2분기와 비교해
2018년 3/4분기 전망치 '75' 대비 무려 '29' 포인트 하락

I | 경주지역 경기전망

- 경주상공회의소(회장 최순호)가 지역 주요 제조업체 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한 2018년 4/4분기 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경주지역 기업의 BSI 전망치 『46』로 나타나 전분기인 3/4분기 전망치 『75』 대비 무려 『29』 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는 경주지역의 제조업체들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중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대중,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최근 신흥국들의 뚜렷한 성장세 틈바구니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고비용 저효율로 점차 세계경쟁력을 잃어가고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확산으로 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경주지역 주요 제조

업체인 중공업과 자동차 관련산업의 경우 내수와 수출 실적이 계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물량감소로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 4/4분기 중 세부 항목별로는 매출액 부분에서 내수가 48, 수출이 52으로 조사되었으며 영업이익 부문중 내수가 30, 수출 영업이익 52로 나타나 생산 물량과 채산성 지표가 3/4분기와 마찬가지로 기준치 100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3/4분기 매출액 실적치 또한 내수가 38, 수출이 44로 응답하였으며 영업이익에서의 수출은 34, 수출은 50으로 당분간 회복세를 기대하는 것은 크게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 기업 경영에 핵심변수를 묻는 조사항목을 보면

① 기업들에게 올해 영업이익(실적)이 연초 세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절반이 훨씬 넘는 업체가 목표치 미달(74%) 되었으며, 조사업체중 초과달성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목표치 미달한다고 답한 업체중 그 이유로는 내수시장의 둔화(38.3%), 고용환경 변화(27.2%), 美·中통상 분쟁 등 보호무역주의(11.1%), 금리인상 기조(9.9%), 환율 변동성(4.9%), 기업관련 정부규제(4.9%), 유가 상승(3.7%)순으로 나타났다.

② 우리나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중장기적 우하향세(78%), 일시적 경기부진(14%), 회복세 지속 혹은 전환기(8%)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중장기적 우하향세에 답한 경우 가장 큰 이유로는 주력산업 침체 장기화(44%),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32%), 경제 양극화(18%), 폐쇄적 규제환경(4%), 저출산·고령화(2%) 순으로 나타났다.

③ 美·中통상분쟁이 귀사의 영업과 매출에 손해를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절반이상이 예(60%)라고 응답하였다.

④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질문에는 수출시장의 다변화(48%), R&D 강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24%), FTA·CPTPP 등 무역협정 체결(20%), 통상관련 모니터링 강화(8%) 순으로 나타났다.

⑤ 남북관계 및 대북제재가 개선·해소된다면, 남북 경제협력 활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업체중 불참여 (66%), 참여가 (34%) 순으로 답해 지역업체의 경우 남북경협에 참여할만한 관련사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참여에 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인건비 절감과 낮은 언어장벽(57.9%),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개발(26.3%), 경의선 연결 등 운송비용 절감 (15.8%) 순으로 나타났다. <끝>

○ 본 조사에 따르면 경주지역 주요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가 BSI '46'으로 사상 최저의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업체들의 느끼는 체감 경기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실효성있는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림 1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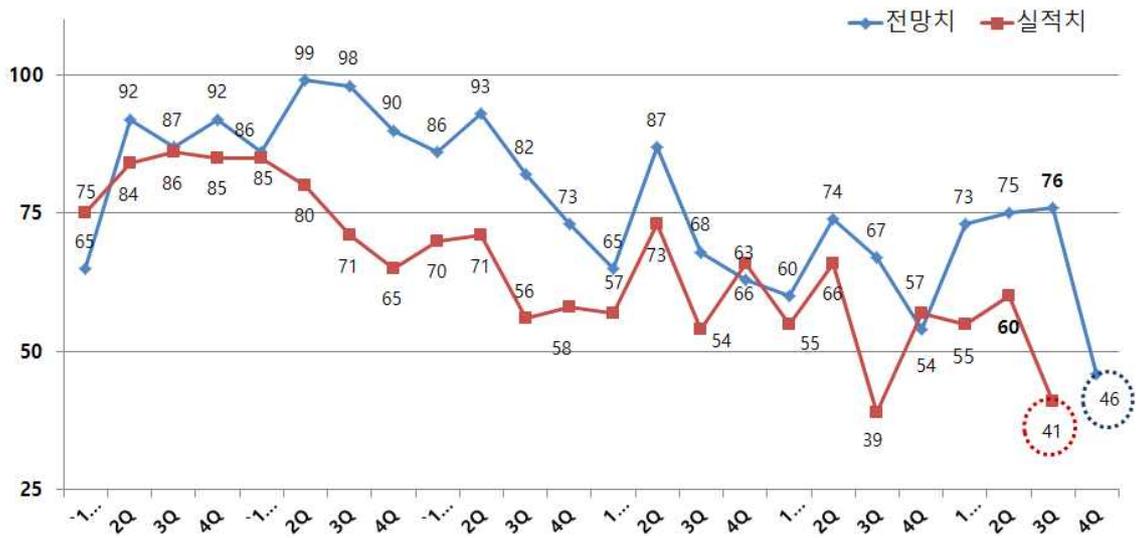


표 1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구분 \ BSI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전망치	82	73	65	87	68	63	60	74	67	54	73	75	76	46
실적치	56	58	57	73	54	66	55	66	39	57	55	60	41	

II 항목별 경기동향

- 2018년 3/4분기 실적 대비 2018년 4/4분기 전망을 비교하면, 전반적인 체감경기의 경우 (38→46), 내수 매출액 (38→48), 수출 매출액 (44→52), 내수 영업이익 (34→30), 수출 영업이익(50→52)으로 여전히 기준치 1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 '18년 3/4분기 실적 대비 '18년 4/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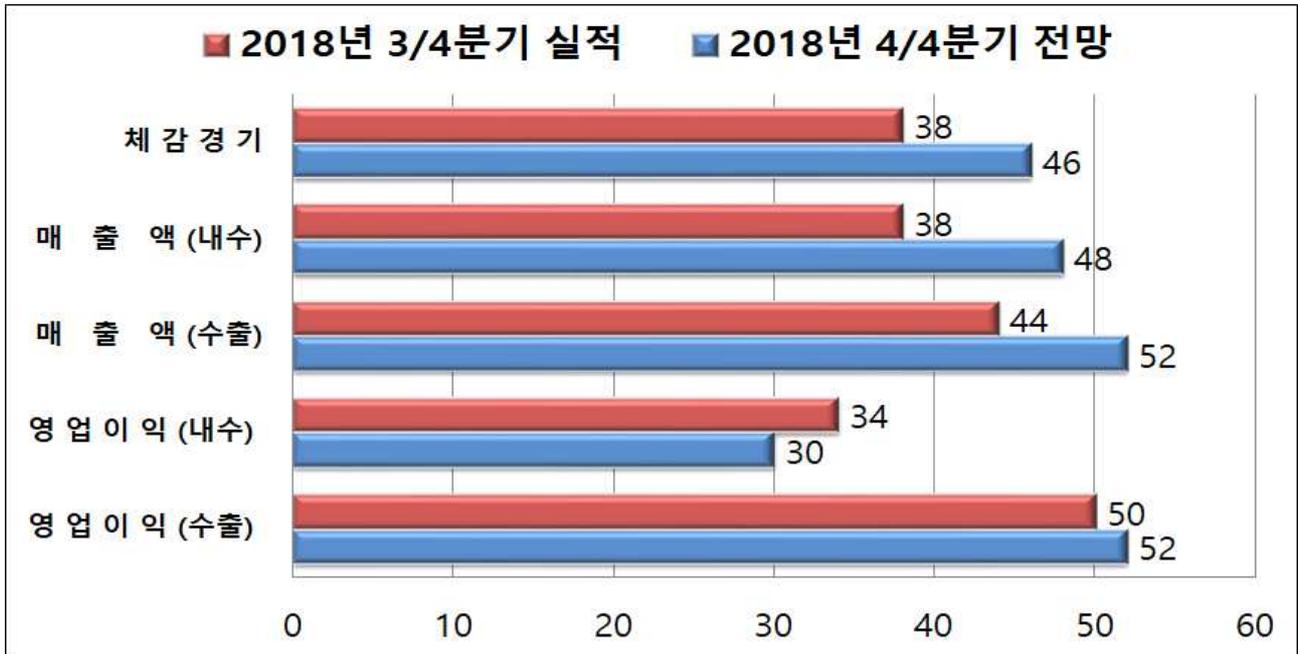


표 2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항 목	기 간		2016		2017								2018							
					1/4		2/4		3/4		4/4		1/4		2/4		3/4		4/4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체감경기	50	40	52	76	60	42	68	50	62	31	47	50	76	62	87	60	84	38	46	
매출액	내수	53	46	64	82	62	44	78	50	63	35	60	60	78	58	90	60	80	38	48
		수출	53	46	64	82	62	44	78	50	63	55	62	62	74	60	69	74	76	44
영업이익	내수	53	44	60							25	49	56	72	48	79	60	70	34	30
		수출	53	44	60							45	47	54	66	58	71	46	68	50
자금조달여건				70	94	54	66	62	57	46	58	60	70	42	54					
설비투자					84	80	84	103	87											

III

기업 경영 핵심 변수

1 “올해 영업이익(실적)이 연초 세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목표치 미달 (74%), 목표치 달성(근접) (26%)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목표치 미달	37	74%
목표치 달성(근접)	13	26%
초과 달성	-	-
합 계	50	100%

2 “(목표치 미달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수시장의 둔화 (38.3%), 고용환경 변화 (27.2%), 美·中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11.1%), 금리인상 기조 (9.9%), 환율 변동성 (4.9%), 기업관련 정부규제 (4.9%), 유가 상승 (3.7%)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체크)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내수시장의 둔화	31	38.3%
고용환경 변화	22	27.2%
美·中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9	11.1%
금리인상 기조	8	9.9%
환율 변동성	4	4.9%
기업관련 정부규제	4	4.9%
유가 상승	3	3.7%
기 타	-	-
합 계	81	100%

3 “우리나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장기적 우하향세 (78%), 일시적 경기부진 (14%), 회복세 지속 혹은 전환기 (8%)**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증장기적 우하향세	39	78%
일시적 경기부진	7	14%
회복세 지속 혹은 전환기	4	8%
합 계	50	100%

4 “(증장기적 우하향세에 답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력산업 침체 장기화 (44%),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32%), 경제 양극화 (18%), 폐쇄적 규제환경(4%), 저출산·고령화 (2%)**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주력산업 침체 장기화	22	44%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16	32%
경제 양극화	9	18%
폐쇄적 규제환경	2	4%
저출산·고령화	1	2%
서비스산업 부진	-	-
기 타	-	-
합 계	50	100%

5 “美·中통상분쟁이 귀사의 영업과 매출에 손해를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60%), 아니오 (40%)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예	30	60%
아니오	20	40%
합 계	50	100%

6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 수출시장 다변화 (48%), R&D 강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 (24%), FTA·CPTPP 등 무역협정 체결 (20%), 통상관련 모니터링 강화 (8%)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수출시장 다변화	24	48%
R&D 강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	12	24%
FTA·CPTPP 등 무역협정 체결	10	20%
통상관련 모니터링 강화	4	8%
기 타	-	-
합 계	50	100%

7 “남북관계 및 대북제재가 개선·해소된다면, 남북 경제협력 활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불참 (66%), 참여 (34%)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불참	33	66%
참여	17	34%
합 계	50	100%

8 “(참여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인건비 절감과 낮은 언어장벽 (57.9%),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개발 (26.3%), 경의선 연결 등 운송비용 절감 (15.8%)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체크)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인건비 절감과 낮은 언어장벽	11	57.9%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개발	5	26.3%
경의선 연결 등 운송비용 절감	3	15.8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개발	-	-
기 타	-	-
합 계	19	100%